

CSU GLOCAL



2026
AUGUST

1. We'll 조선대학교 비전 한눈에 보기
2. 이달의 글로컬 소식
3. GLOCAL TALK
4. 학생이 전하는 글로컬 이야기
5. 언론이 주목한 글로컬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글로컬대학추진단

목 차

1. We'll 조선대학교 비전 한눈에 보기

2. 이달의 글로벌 소식

- 06 AI부터 고령친화산업까지, 웰에이징 산업 생태계 협력 네트워크 확장
- 08 더 나은 배움, 더 가까운 혁신. 학생이 체감하는 글로벌 캠퍼스

3. GLOCAL TALK

- 10 G-하트온 프로젝트학기제 참여학생 인터뷰

4. 학생이 전하는 글로벌 이야기

- 14 조선대학교 글로벌대학 홍보 서포터즈 상반기 활동 결산!

5. 언론이 주목한 글로벌 조선대학교

- 17 항저우 웰에이징 기업과 손잡고 K-헬스케어 인재 양성 확대
AI·디지털 전환 속 웰에이징 인권 의제 발굴

We'll 조선대학교

비전 한눈에 보기

글로벌대학이란?

글로벌(Glob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 학과 간, 대학과 지역산업 간, 국내와 국외 간 벽을 허물고 지자체 및 지역 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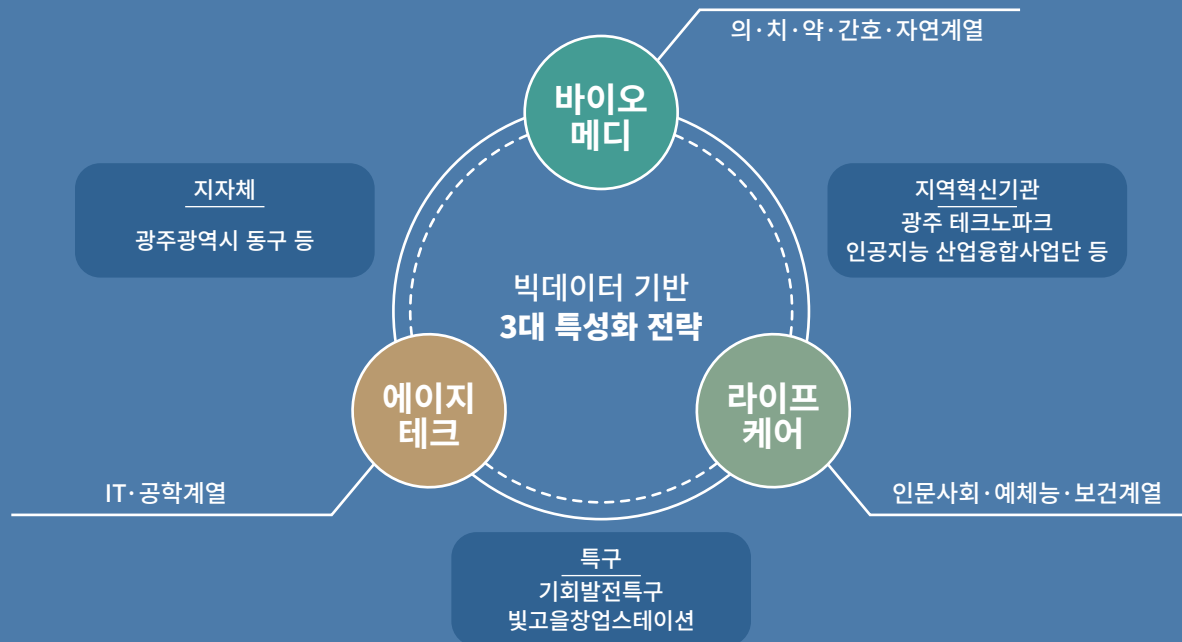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글로벌대학 핵심 비전

“웰에이징 Asia No.1대학”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미래형 대학

웰에이징 3대 특성화 전략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및 바이오,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융합되어 건강하고 편리하며 행복한 삶의 실현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특성화 분야



교육 혁신

■ 달성값 ■ 목표값
기준 일자: 2026. 8. 31.



연구혁신·지산학협력



글로벌 도약



FI부터 고령친화산업까지 웰에이징 산업 생태계 협력 네트워크 확장

전문기관과 잇단 협약, 웰에이징 협력 기반 강화

조선대학교가 웰에이징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다. 조선대학교 글로벌대학추진단은 지난 8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AI·데이터부터 기술 실증, 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웰에이징 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두 차례 협약은 조선대학교가 추진하는 웰에이징 특성화를 대학 내부의 교육과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전문기관과 연결해 산업 현장까지 확장하기 위한 행보다.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기업지원·실증 역량과 AI 분야의 전문 인프라를 각각 연계하면서 웰에이징 미래산업을 뒷받침할 협력 기반을 한층 넓혔다.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송병호 센터장(좌)과 글로벌대학추진단 김선중 단장(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와 산업 현장 연계 강화

먼저 8월 7일 조선대학교 글로벌대학추진단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와 웰에이징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혁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기업지원 및 실증 인프라를 연계해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고령친화 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을 비롯해 리빙랩 기반 제품 실증 및 사용성 평가, 산학협력 교육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데이터와 연구성과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조선대학교 김선중 총장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박재도 단장

AICA와 AI 기반 웰에이징 혁신 체계 구축

이어 8월 13일에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과 AI 기반 웰에이징 혁신 체계 활성화 및 지역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선대학교가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와 AICA가 보유한 AI 인프라 및 전문역량을 연계해 AI와 웰에이징을 결합한 연구·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은 AI반도체·웰에이징 융합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디지털헬스케어·웰에이징 데이터 활용과 실증, AI 융합 전문인력 양성, 기업지원 및 기술사업화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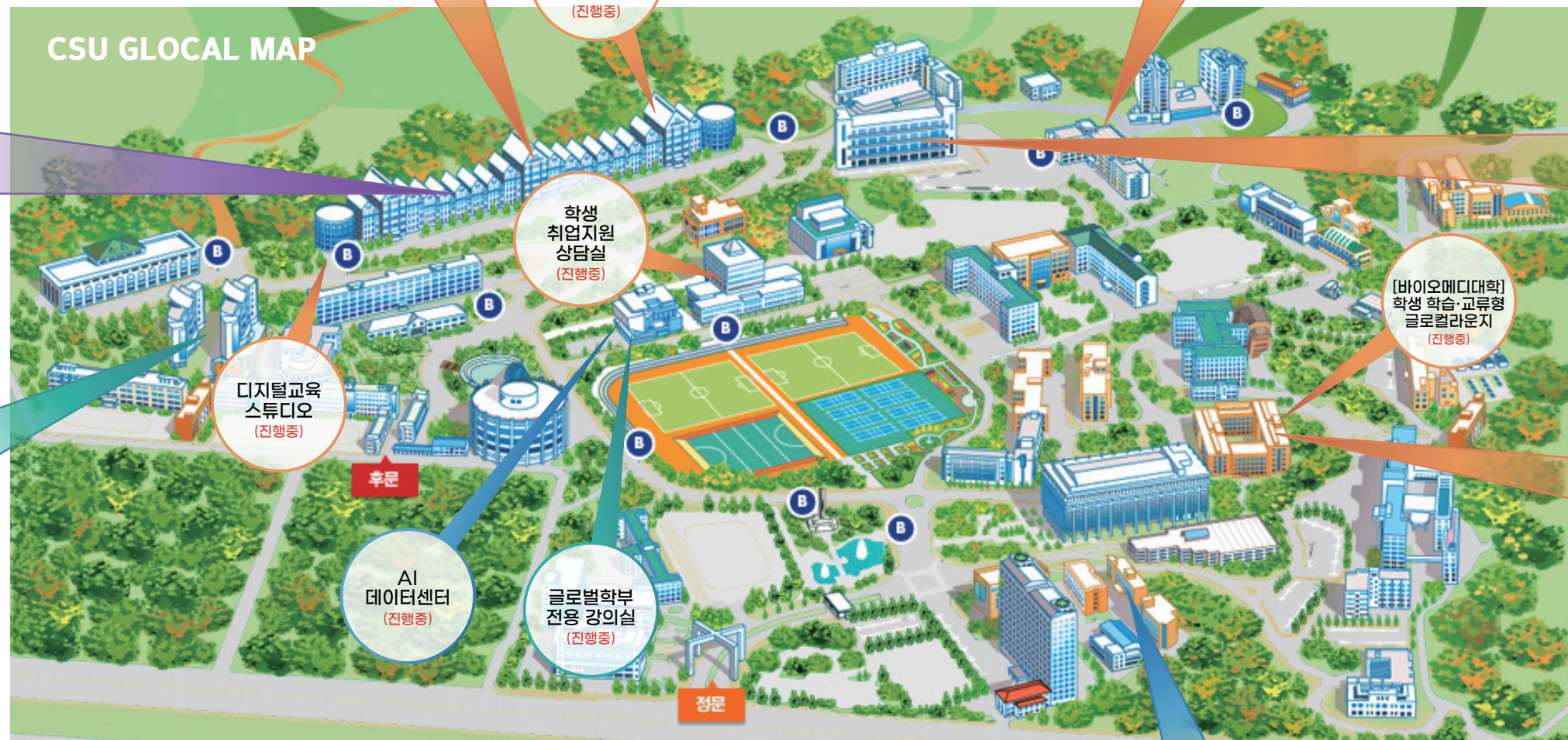
교육·연구 넘어 기술개발과 산업화로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선대학교는 웰에이징 특성화의 영역을 교육과 연구에서 기술개발, 실증, 기업지원, 산업화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AI·데이터·고령친화산업 등 웰에이징과 연계된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웰에이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더 나은 배움, 더 가까운 혁신 학생이 체감하는 글로벌 캠퍼스

학생의 일상에서 체감하는 글로벌 변화

글로벌대학을 통한 변화는 교육과 프로그램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조선대학교는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배우고 소통하며, 새로운 교육과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캠퍼스 곳곳의 학습·소통 공간과 교육 기반을 새롭게 마련해 왔다. 동시에 3대 특성화 단과대학의 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글로벌대학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연구 공간과 창업·기업지원·산학협력 거점도 함께 조성하며 혁신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의 일상 속에서 글로벌대학을 통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소통과 협력이 이어지는 캠퍼스의 새로운 경험을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의 일상 가까이에 자리한 글로벌 혁신 공간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자.



GLOCAL TALK

G-하트온 프로젝트학기제

전공의 경계를 넘어 함께 고민하고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아가는 시간.

한국과 베트남 학생들이 함께한 G-하트온 글로벌 웰에이징 솔루션 프로그램은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으로 확장하고 서로 다른 전공과 문화의 관점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연결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참여학생들을 만나 프로젝트 시작부터 베트남 현지에서의 배움, 그리고 그 경험이 만들어낸 변화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Q ‘G-하트온 프로젝트학기제’에 지원하게 된 계기

박서연 : 같은 학교 안에서도 다양한 학과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여러 전공의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특히 베트남 유학생들과 협업하며 해외 경험과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지원게기가 되었습니다.

김한빈 : 학교에서 다양한 글로벌대학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G-하트온 프로젝트학기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웰에이징 분야가 전공과도 관련이 있고, 관심이 있던 분야여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G-하트온 프로젝트학기제에 참여한 (왼쪽부터)팜탄중, 김한빈, 함티지양, 박서연학생과 글로벌대학 홍보 서포터즈

Q 팀별로 진행한 웰에이징 솔루션 주제는?

김한빈 : 저희 팀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와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활용가능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했습니다. 전공(의예과)과 관련된 기능성과 성분에 대해서는 익숙했지만, 이를 제품화하고 솔루션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은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팀원들과 협업하며 마케팅, 제품 기획,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분야의 관점을 접할 수 있었고, 전공을 넘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Q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박서연 : 국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웰에이징’이라는 넓은 주제를 하나의 프로젝트 주제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팀원마다 전공과 관점이 달라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함께 논의하며 방향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팜탄중 : 처음에는 한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표현과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대화를 이어갔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협업할 수 있었습니다.



◀ 베트남 투어러이 대학교 내 연구 실습

▼ G-하트온 프로젝트학기제 참가자 단체사진





▲ 베트남 투어리 대학 교 파견 현장

Q 베트남 현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함티지양 : 베트남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베트남에 방문하니 새롭고 반가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으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김한빈 : 베트남의 무더운 날씨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체감온도가 47도에 이를 정도로 더웠지만, 현지 대학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현지 학생들이 실험 방법과 장비 사용법 등을 친절하게 알려주며 적극적으로 도와준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박서연 :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더운 날씨와 수많은 오토바이를 보며 베트남의 분위기를 실감했습니다. 특히 현지 대학에서 특강을 듣고 실습에 참여했던 시간이 가장 인상깊고 뜻깊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Q 베트남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

김한빈 :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론과 활용방안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했지만, 베트남에서는 직접 실험을 수행하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약용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항산화 효과 분석과 해조류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실험에 참여하며 이론으로만 배웠던 내용을 직접 검증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Q 글로벌대학의 특성화 분야 중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박서연 : '라이프케어' 건강은 단기간의 관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생활 습관을 통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김한빈 : '바이오메디' 전공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기도 했으며, 전통적인 약용식물을 현대적인 추출·정량화 기술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실험을 직접 경험하면서 바이오메디 분야의 활용 가능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Q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 진로와 변화, 성장이 있다면?

박서연 : 이전에는 같은 학과 친구들과 전공 공부를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와 실험을 진행하며 협업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또한 실험에서는 정확한 수치와 체계적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앞으로 전공 공부도 더욱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팜탄중 :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는 경험을 쌓으며 협업의 중요성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한빈 :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협력하며 글로벌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국내에서만 진로를 생각했지만, 해외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국제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함티지양 :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 약용식물정원 현장 방문



글퀴즈 ep.1 바로보기



글로벌 인턴십(미국)편



글퀴즈 ep.2 바로보기



G-하트온 프로젝트학기제편



학생이 전하는 글로컬 이야기

조선대학교 글로컬대학 홍보 서포터즈 상반기 활동 결산!

어느덧 상반기 활동이 지나고, 글로컬 홍보 서포터즈도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왔는데요!
부스 운영부터 카드뉴스, 영상, 인터뷰까지 각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무엇일까요? 서포터즈들이 직접 뽑은 상반기 최고의 순간을 함께 만나볼까요?

다전공 박람회와 글로컬대학 캐릭터 공모전

5월에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팀원들과 함께 부스를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8월에는 공모전을 기획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하나씩 완성해 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공모전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고, 혼자보다는 둘, 셋이 함께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만큼 뿌듯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으며, 열심히 준비한 공모전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재학생 투표까지 이어질 날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2026 대학혁신-앵커-글로컬 성과포럼

다양한 사업단의 활동 추이를 알고 여러 정보들을 공유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글로컬대학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조금 더 우리 서포터즈가 열심히 활동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처음 만들었던 글로컬대학을 소개했던 카드 뉴스가 기억에 남습니다. 잘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처음이라 서툴지만 잘하고 싶던 저의 모습이 계속 생각 나는 것 같습니다.



류민서



정가영

카드뉴스 제작

상반기 동안 글로컬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매달 새로운 주제를 고민하고,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조선대학교에서 해외 가는 방법'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알아볼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글로컬대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콘텐츠를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콘텐츠를 보면서 혼자였다면 생각하지 못했을 다양한 아이디어도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남은 활동에서도 지금까지 배운 점들을 잘 활용해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글로컬레터 원고 작성

7월 글로컬레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직접 작성한 글이 실제 글로컬레터로 발행된다는 점이 새롭게 느껴졌고, 레터 작성 이후 발행되는 날을 기다리며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후 완성된 레터 7월호를 처음 확인했을 때는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작성하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하나의 결과물로 완성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모습을 보며 콘텐츠 제작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는 어떤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최은빈

'학생, 글로컬이 뭔지 알아요?' 홍보영상 촬영

상반기 활동 중 글로컬의 개념을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직접 배우로 출연했던 <학생 글로컬이 뭔지 알아요?> 영상 제작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글로컬 대학 사업과 3대 특성화 전략을 강의실 상황극을 통해 위트 있고 몰입도 높게 풀어냈습니다. 직접 카메라 앞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며 기획 의도를 효과적으로 살려내 서포터즈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 결과물입니다. 기획된 콘티를 현장에서 생생한 장면으로 구현해 내기 위해 카메라 뒤의 팀원들과 씬 없이 소통하며 협업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넘어 서로의 아이디어를 보태고 조율하는 팀워크가 있었기에 영상의 메시지와 몰입도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전공 박람회 부스 운영

5월 운영전공 박람회에서 미디어팀으로 활동하며 부스 구성과 제작, 영상 촬영 및 편집까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팀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협업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해결해 나가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황승연

• 글로벌 인턴십(미국) 참여학생 인터뷰 •

이번 콘텐츠는 촬영에 필요한 장비 준비부터 기획, 촬영, 편집까지 직접 꼼꼼하게 준비하며 완성해 나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평소 제작하던 콘텐츠보다 영상 분량이 길어 편집 과정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도 많았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쉽지만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하나씩 수정하고 완성해 가면서 결과물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니 뿌듯했고, 긴 호흡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 자체도 재미있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콘텐츠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인터뷰 콘텐츠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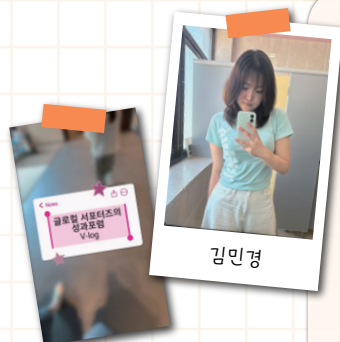


이종훈



• 인터뷰 촬영과 성과포럼 브이로그 •

제가 상반기 중 제작한 콘텐츠 중 가장 인상깊었던 콘텐츠는 인터뷰 촬영과 성과포럼 브이로그입니다! 성과포럼 브이로그는 기획, 촬영, 편집 모두 온전히 저 스스로 콘텐츠를 완성하여 뿌듯함이 배로 느껴졌었던 거 같습니다! 인터뷰 촬영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영상을 제작하게 되어 긴장되기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정기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박차를 가하는 거 같아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유명한 프로그램을 패러디 한다는 점이 굉장히 재밌는 요소였던 거 같습니다. 또한 저 스스로도 엠씨라는 역할을 맡아 진행을 이끌며 저의 새로운 역량을 발전시키게 되고 점점 그 역량이 느는 것을 느꼈던 거 같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미국 인턴십 인터뷰 뿐만이 아니라 하트온 프로젝트학기제, 일본 인턴십 인터뷰 등 앞으로도 점점 발전하는 글퀴즈와 글로컬 서포터즈를 지켜봐주세요!



김민경



• 글퀴즈 온 더 블럭 인터뷰 촬영 •

처음으로 인터뷰 스크립트를 직접 기획하고 카메라 앞에서 서서 촬영을 진행하며 진정한 의미의 색다른 도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본을 구성하고 내용을 매끄럽게 전달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낯설고 긴장되기도 했지만, 카메라 앞에서 진솔하게 제 이야기를 풀어내며 스스로 한 뼘 더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촬영 경험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 활동에서도 무엇이든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듬뿍 얻었습니다



차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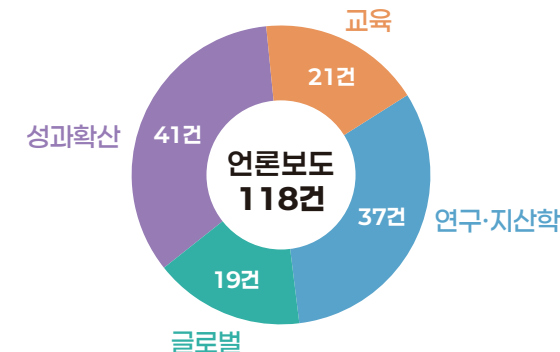
돌아보니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며 바쁘게 달려온 상반기였는데요!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었던 활동도 직접 부딪혀보고,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하나씩 완성해가다 보니 어느새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활동과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글로컬 홍보 서포터즈의 하반기 활동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 CSU 글로컬대학 홍보 서포터즈 1기 스토리팀 최은빈(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년)

언론이 주목한 글로컬 조선대학교

분야별 언론보도 현황 (2026. 8. 31. 기준)

• 교육: 21건	학사, 교육과정, 인재양성, 대학 통합 등
• 연구·지산학: 37건	연구성과, 기술, 산학협력, 기업협력 등
• 글로벌: 19건	해외협력, 유학생, 글로벌 네트워크 등
• 성과확산: 41건	비전공유, 행사, 포럼, 홍보 등



조선대학교 글로벌학부는 지난달 말 중국 항저우를 방문해 쑹엔테크놀로지(Shouken Technologies), 픽셀립(Paeleap)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유학생 대상 K-헬스케어 트랙의 현장 연계 교육과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특강, 학생 현장실습·인턴십, 산업체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며, 중국 웰에이징 산업의 실제 사례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학생들의 글로벌 산업 이해도와 실무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항저우 웰에이징 기업과 손잡고 K-헬스케어 인재 양성 확대

조선대학교 인권센터는 7월 29일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CONNECT HALL에서 '상생과 포용의 디지털 인권 리빙랩'을 열고, AI·디지털 기술 확산 속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접근권과 인간 존엄 문제를 시민과 함께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재학생과 교직원, 지역 시민을 비롯해 임미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과 최정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원이 참석해 시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인권 의제 발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은 향후 AI 웰에이징 인권 모의의회와 디지털 인권 정책 제안으로 연계해, 웰에이징과 디지털 인권 의제를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AI·디지털 전환 속 웰에이징 인권 의제 발굴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대학



**CSU
GLOCAL
LETTER**

csu GLOCAL LETTER

더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